

## 광주 장기미집행 공원 2천613억 투입

市, 공원일몰제 대책 발표...재정공원 15곳 등 25곳 확정  
2023년까지 보상·조성 완료...민간 특례사업 9-10월 협약

광주시가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재정공원 사업에 2천613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우선협상 대상자들과 협의를 통해 오는 9-10월중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광주시내 일몰제 대상 근린공원은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공원 15곳, 민간공원 특례사업 9곳, 전체 해제공원 1곳 등 모두 25곳이다.

재정공원은 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황룡강대상, 본촌, 신용(양산), 영산강대상, 화정, 운천, 송정 등 15곳으로 총 268만㎡ 규모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은 마록, 수광, 송암, 봉산, 중앙1·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등 9곳(832만㎡)이며 해제공원은 광목 1곳(1만㎡)이다.

시는 재정공원 15곳의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천61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15개 공원의 사유지 보상액은 1천968억원이고, 국유지 매입에 359억원, 공원시설

최소 조성사업에 286억원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사유지 매입예산 427억원을 확보해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공원별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해 2023년까지 공원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곳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건 등이 마무리되는대로 9-10월께 각 공원별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2면에 계속  
/김다이기자



감동의 순간을 전 세계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보름 앞둔 27일 오후 주경기장인 광산구 남부대학교에서 국제방송센터(IBC)개관식이 열려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세계수영대회 '국제방송센터' 개관

광주세계수영대회 D-14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생생한 감동의 순간을 전 세계로 전파해 줄 국제방송센터(IBC)가 문을 열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 오후 남부대학교 국제방송센터에서 이용섭 조직위원장과 방송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지구촌 20억 이상 시청자 대상 생생한 현장소식 전파

방송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국제방송센터는 경기장에서 제작된 영상과 음향을 국제신호(IS)로 전 세계 방송권자(RHB)들에게 분배해 각국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송출할 수 있게 하는 곳이다.

남부대 수구 경기장 옆 3천100㎡ 면적으로 조성된 국제방송센터는 국제신호

를 수신, 전환, 송출하는 CDT(Contribution, Distribution, Transmission)와 국제신호를 저장해 사용하는 Archive Room, 국제신호 제작의 품질을 관리하는 PQC(Program Quality Control), 방송권자들(RHB) 등의 제작 공간들이 있다.

국제신호(IS)는 대회 주관방송사인 MBC와 TV 아사히가 제작해 세계 각 나라

에 수신, 전환, 송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국제방송센터 개관으로 광주수영대회의 주요 경기 장면은 전 세계 60여 개 방송사를 통해 20억명이 이상이 시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위원장인 이 시장은 "수영대회 기간 내내 국제방송센터는 24시간동안 환하게 불을 밝히고, 광주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도전과 뜨거운 감동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다"며 "역대 가장 성공적이고 신속하면서도 품격 높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조직위도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기자

##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창립 20주년 토론회

7월 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회의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동안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변화의 흐름을 성찰하고 사회운동 단체로서의 운동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여성장애인연대는 공동으로 '장애여성인권운동 20년, 다시 시작이다 Begin Again'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1999년 여성 장애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연대성과 공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창립된 광주여성장애인연대의 정체성과 지향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앞으로의 활동 및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광주매일TV를 통해 생중계될 이번 토론회에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 최 : 광주매일신문·광주여성장애인연대  
◇주 제 : '장애여성인권운동 20년, 다시 시작이다 Begin Again'  
◇일시·장소 : 2019년 7월 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회의실  
●주제 및 발표자 : △20년 여정, 성과와 과제(이순하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이후 자립지원 방향모색(김지숙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셋터 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20년 역사속의 여성장애인 운동(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사회 및 토론자 : △좌장=나 현 (광주시의회 의원) △토론자=서미정(전 광주시의원), 서미화(목포시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한윤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문의 : 062-650-2007

## 30년 뒤 광주·전남 학령인구 '반토막'

오는 2047년 6-21세 인구 광주 47.6%·전남 46.4% ↓

30년 뒤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급감할 전망이다.

27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판)에 따르면 전국 학령인구(6-21세)는 2017년 846만명에서 2047년 524만명으로 38.0%(322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광주지역은 47.6%, 전남지역은 46.4%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만 학령인구가 2017년 5만명에서 2047년 10만명으로 늘어나고 이외 지역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같은 기간 제주도 학령인구는 16.0%, 경기도는 25.9%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지역의 학령인구 예상 감소율은 충남 31.7%, 인천 35.2%, 충북 38.1%, 경남 42.6%, 강원 43.9%, 서울 45.2%, 울산

45.3%, 경북 46.8%, 대구 47.4%, 대전 47.7%, 부산 47.9%, 전북 48.0% 등으로 예상 감소율이 30% 이상인 시·도가 14곳이며 그 중에서도 40% 이상인 곳은 11곳에 달했다.

학령별로는 고등학교 학령인구인 15-17세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남에서는 학령인구가 6만명에서 3만명으로 반 토막 났고, 대구(49.5%), 광주(48.9%), 울산(48.7%) 등의 예상 감소율이 높은 편이었다. 0-14세 유소년인구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유소년인구는 2017년 672만명에서 2047년 450만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세종만 유소년인구가 50.8% 증가하는 가운데 13개 시·도에서 유소년인구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함께 만들어요!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2019.7.12 - 7.28. (17일간)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2019. 8. 5. - 8. 18. (14일간)